


# 석영호 Seock Youngho (b.1965)

 @youngho\_seock

**학 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개 인 전** 2023 '대화' 마루아트센터 초대전 (한국).  
 2020 '대화' gangS 갤러리 초대전 (한국).  
 2017 '대화' NY갤러리 초대전 (Able fineart NY gallery/뉴욕)  
 2015 '대화' NY갤러리 초대전 (Able fineart NY gallery/서울)  
 2014 '대화' NH농협 신촌지점 초대전 (서울)  
 2012 '대화' NY갤러리 초대전 (Able fineart NY gallery/ 서울)  
 '대화' NY갤러리 초대전 (able fineart NY gallery / 뉴욕)  
 2011 '대화' 인사아트센터 (서울)  
 2010 '대화' 뉴욕 갤러리 초대전 (Able fineart NY gallery / 뉴욕)  
 '대화' 하미강 갤러리 초대전 (서울)  
 2003 '대화' 가평아트센터 (한국)  
 그 외 다수

**초대 / 단체전** 2024 대만 타이베이 Emerging 2024  
 2023 마루아트센터 기획전 (서울/한국)  
 대작전 (남송박물관)  
 역사에 서다 (양평 군립 미술관)  
 농그룹전 (갤러리 위드)  
 가평예술단체전(조형갤러리)  
 2022 심포지엄 (설미제 미술관)  
 2021 a company Exhibitions 1.2.3tims (갤러리 with)  
 2019 Beyond Exhibition (776 gallery / 부르클린 New York)  
 농그룹전 (이즈갤러리 / 한국)  
 2018 농그룹전 이즈갤러리 / 한국)  
 2017 2017 BESTO 아트 페스티벌 SEOUL (성신여대 미술관 / 한국)  
 농그룹전 (IS갤러리 / 한국)  
 농그룹전 (INI갤러리 / 제주도/코리아)  
 그 외 다수

**아 트 페 어** 2024 LA 아트쇼  
 2023 서울아트쇼 (코엑스 서울)  
 AAF 싱가포르 (싱가포르)  
 AAF 홍콩 / 2022 레드닷 마이애미  
 2022 AAF 싱가포르  
 BAMA 부산 (부산 벅스코)  
 2021 서울아트쇼 (코엑스 서울)  
 인천 아시아아트쇼 (인천컨벤시아)  
 2019 PIAS 2019 (코엑스 서울)  
 AAF 홍콩(홍콩컨벤션 센터)  
 2017 살롱 "Art contemin" (엑상 프로방스 / 프랑스)  
 2016 DDP AAF (서울)  
 밀라노 AAF (이탈리아)  
 2015 KIAF (코엑스.서울)  
 그 외 다수

## [Artist's Note]

---

지구의 모든 생물은 결국 지구로 돌아올 것이다.

한때 세상에 특정 방법이나 가치로 존재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흙의 형태로 돌아오게 된다.

즉, 토양은 삶과 죽음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물질이다.

전 세계 모든 창조를 꿈꾸는 예술가들은 작품에서 삶과 죽음을 기본 주제로 사용한다.

내가 주된 매체로 다루는 토양에는 다양한 특성이 있습니다. 토양은 축축하거나 건조하거나 부서지기 쉬우며 때로는 매우 끈적거리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런 토양의 특성과 같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으며, 그러한 개인의 다양한 성격 등은 이러한 토양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작품을 만드는 동안 지구는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토양의 모양은 바람의 세기와 빛의 양에 따라 변한다. 나의 창작과정에서는 흙이 베이스가 되고 아크릴 페인트를 함께 사용하여 최대 변형을 즐기고자 한다. 하지만 한지를 찢고 흙과 페인트를 섞어 흙이 숨 쉴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바람이 통과할 길을 열어 작품의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주는 것과 같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흙은 인간을 환영하는 마지막 존재이고, 곧 그것이 바로 본인의 예술을 통해 표현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자연과 유사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생각하며, 자연과 삶에 정해진 경계를 가지고 스며드는 예술을 형태를 구현하고 연구한다.

내 작품 속에는 작품 그 자체가 가지는 가치 이상으로, 작가 본인과 작품을 소유한 사람 모두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열망 그 자체를 담는다.